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316-324,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31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와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김종근, 유장학, 천의영*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부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ng Gun Kim, Jang Hak Yoo, Eui Young Cheon*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와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무례함, 소진, 대처와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평균나이는 21.5세이었으며, 무례함, 소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척도 중 각각 1.18, 3.41, 2.48, 그리고 3.30이었다. 연구 결과, 무례함, 소진, 대처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무례함과 임상실습만족도, 소진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대처와 임상실습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처, 무례함, 소진이었고, 그 설명력은 26.6% (F=9.868, p<.001) 이었다. 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과 관련하여 임상현장에서의 대인관계 역량강화 및 임상실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나 지지체계 등의 준비된 실습환경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상 현장과의 다각적 협력과 다양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 set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was completed by 160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ver. 18.0. The mean age was 21.5 years. The mean scores, in Likert scales, were 1.18. 3.41, 2.48 and 3.30 out of 5 for items of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our analysi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among incivility, burnout, and coping;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incivility and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burnout and satisfaction. The predictors on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were coping, incivility, and burnout. Our model explained 26.6% (F=9.868, p<.001) of the varianc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lated to main impediment, it is necessary to build prepared practice environment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 capacity empowerment and supporting system. Therefore, various nursing curricular programs are needed to promote satisfaction through multilateral collaboration with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Burnout, Coping, Incivility,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This paper was published by Suwon women's University Research Funding.
*Corresponding Author : Eui young Cheon(Suwon Women's Univ.)
Tel: +82-31-290-8214 email: astra20@swc.ac.kr
Received November 17, 2016 Revised (1st December 6, 2016, 2nd December 19,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실무학문으로 이론교육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시킨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간호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토대로 임상현장을 경험하지만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낯선 실습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특히 임상실습은 단순한 실습만이 아닌 복합성을 지닌 사회조직으로의 투입으로[1] 사회경험이 없고 간호학제를 마치지 않은 간호대학생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낯선 임상환경에서의 실습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2].

임상환경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 그리고 힘겨운 업무, 많은 직원과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무례함에 취약하다[2]. 이러한 임상특성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무례함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이미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현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5],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환경에서 행해지는 교육적인 무례함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대개 권위적이거나 경력이 높은 직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6].

보건의료환경에서 행해지는 무례함은 간호사들에게 소진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또한 부정적인 임상현장에 간호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종종 정신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8]. 이렇게 임상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소진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환경에서 경험하는 무례함과 이와 같은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은 물론 실습을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소진 정도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9], 무례함을 포함한 부정적인 임상환경은 이들의 소진을 더욱 가중시켜 임상실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무례함이나 소진과 관련된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7,10]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 많은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의 무례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례함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례함과 관련된 변인들과 함께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무례함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을 조사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무례함과 같은 부정적인 여건에 의한 소진의 정도와 이에 대처하는 방식과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현장인 종합병원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을 포함한 특수부서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7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0.95, 효과크기 0.15, 측정

변수 8개를 이용하여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55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9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과장의 허락 하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 중 언제든지 설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비밀 보장, 수집된 자료를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것과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참여를 서면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자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개별봉투에 담아 수거하였다. 총 1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1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무례함

무례함이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생각없는 행동으로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불분명하나 폭력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1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Anthony와 Yastic[12]이 개발한 UBCNE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주' 4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7 이었다.

2.3.2 소진

소진이란 대인관계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서적 탈진과 자신에 대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무능감의 총체적 현상[13]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Schaufeli 등[14]이 대학생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BI-SS :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도구를 Shin 등[15]이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범주로는 정서적 탈진 5문항(1-5번), 냉담 4문항(6-9번), 무능감 6문항(10-15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등[15]의 연구에서 하위범주별 신뢰도는 정서적 탈진 .86, 냉담 .82, 무능감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탈진 .82, 냉담 .81, 무능감 .80이었다.

2.3.3 대처

대처란 개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힘들다고 판단되는 내·외부적인 상황을 다루려고 하는 인지행동적 노력[16]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7]이 개발한 도구를 Han 등[18]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대처유형은 문제해결중심 8문항(1-8번), 희망적 관측 5문항(9-13번), 무관심 6문항(14-19번), 사회적지지 추구 6문항(20-25번), 긍정적 관점 4문항(26-29번), 긴장해소 5문항(30-34번)으로 6개 하위 범주로 구성되며, 총 3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다.

2.3.4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란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 내용, 지도, 실습 환경, 실습 시간 및 평가에 대한 만족정도를 의미[19]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19]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간호학 교수 3인의 자문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 범주로는 실습내용 6문항(1-6번), 실습지도 3문항(7-9번), 실습환경 6문항(10-15번), 실습시간 3문항(16-18번), 실습평가 4문항(19-22번)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1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무례함, 소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

의한 항목의 사후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무례함, 소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교외 임상실습현장인 종합병원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등의 특수부서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수행한 자들로, 여학생이 160명(100%), 학년은 3학년 88명(55.0%), 4학년 72명(45.0%)이었고 연령은 '19-21세' 79명(49.4%), '22-24세' 60명(37.5%), '25세 이상' 21명(13.1%)이었다. 종교는 '있음'이 80명(50.0%), '없음'이 80명(50.0%)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 100명(62.5%), '보통'이 47명(29.4%), 수간호사와의 관계는 '원만함' 100명(62.6%), '보통' 60명(37.4%), 평간호사와의 관계는 '원만함'이 107명(66.9%), '보통' 53명(33.1%)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160	100
School year	Junior	88	55.0
	Senior	72	45.0
Age	19 - 21	79	49.4
	22 - 24	60	37.5
	25 - highest	21	13.1
Religion	Catholicism	53	33.1
	Protestantism	16	10.0
	Buddhism	11	6.9
	None	80	50.0
Relationship with Head Nurse	Good	100	62.6
	Usual	60	37.4
Relationship with General Nurse	Good	107	66.9
	Usual	53	33.1

3.2 연구대상자의 무례함, 소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연구대상자가 경험하는 무례함은 1.18±0.58점이었다. 소진은 3.41±0.37점으로 하위범주인 정서적 탈진 3.90±0.72점, 냉담 2.38±0.82점, 무능감 3.70±0.53점이었고, 대처는 2.48±0.29점으로 하위범주인 문제해결중심 대처3.24±0.29점, 회피중심 대처 3.26±0.25점,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3.43±0.32점, 희망적 사고중심 대처 3.06±0.37점, 긍정적 사고중심 대처 2.44±0.55점, 긴장완화중심 대처 2.19±0.48점 그리고 임상실습만족도는 3.30±0.48점으로 그 하위범주인 실습내용만족 3.53±0.36점, 실습교육만족 3.20±0.69점, 실습환경만족 3.15±0.48점, 실습시간만족 3.54±0.67점, 실습평가만족 3.01±0.7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160)

Variables	Range (Min-Max)	M±SD
Incivility	0.00-2.75	1.18±0.58
Burnout	2.60-4.40	3.41±0.37
Emotional	1.40-5.00	3.90±0.72
Lack of Interest	1.00-5.00	2.38±0.82
Incompetence	2.17-5.00	3.70±0.53
Coping	1.82-3.24	2.48±0.29
Problem Solving focused	2.36-4.14	3.24±0.29
Wishful Thinking focused	2.07-4.29	3.06±0.37
Avoiding focused	2.57-4.00	3.26±0.25
Social Support Seeking focused	2.57-4.43	3.43±0.32
Positive Thinking focused	1.00-4.00	2.44±0.55
Tension Relieve focused	1.00-3.40	2.19±0.4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41-4.18	3.30±0.38
Contents	2.67-4.33	3.53±0.36
Instructions	1.67-5.00	3.20±0.69
Environments	2.00-4.33	3.15±0.48
Hours	1.33-5.00	3.54±0.67
Evaluations	1.00-4.75	3.01±0.76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 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 간 차이는 수간호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대처 (F=11.74, p=.001), 임상실습만족도(F=5.87, p=.001)점수가 높았고, 일반간호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대처(F=7.81, p=.006), 임상실습만족도(F=5.90, p=.016) 점수가 높았으나 사후검증결과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civility		Burnout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SD)	F(p)	M(SD)	F(p)	M(SD)	F(p)	M(SD)	F(p)
School year	Junior	1.10 (0.56)	.15 (.70)	3.53 (0.36)	0.002 (.96)	2.50 (0.30)	.05 (.84)	3.30 (0.39)	0.10 (.75)
	Senior	0.85 (0.57)		3.30 (0.35)		2.48 (0.27)		3.30 (0.37)	
Religion	Yes	0.93 (.53)	1.05 (.31)	3.41 (.37)	.19 (.66)	2.52 (.27)	1.38 (.24)	3.31 (.39)	1.00 (.32)
	No	1.03 (.63)		3.43 (.37)		2.44 (.31)		3.26 (.36)	
Age	19-21	1.02 (0.54)	0.68 (.50)	3.46 (0.38)	1.42 (.24)	2.46 (.28)	0.71 (.49)	3.28 (.36)	.14 (.87)
	22-24	1.00 (0.64)		3.38 (0.36)		2.50 (.29)		3.30 (.42)	
	25-Highest	0.84 (0.59)		3.31 (0.38)		2.53 (.30)		3.31 (.33))	
Relationship with Head Nurse	Good	0.98 (0.58)	0.02 (.98)	3.43 (0.37)	0.64 (.53)	2.56 (0.28)	11.74 (.001)	3.37 (0.38)	5.87 (.001)
	Normal	0.97 (0.59)		3.38 (0.36)		2.36 (0.26)		3.17 (0.33)	
Relationship with General Nurses	Good	0.90 (0.54)	1.45 (.11)	3.40 (0.39)	0.46 (.49)	2.53 (0.28)	7.81 (.006)	3.35 (0.39)	5.90 (.016)
	Normal	1.15 (0.63)		3.44 (0.3)		2.39 (0.29)		3.20 (0.34)	

3.4 연구대상자의 무례함, 소진, 대처와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무례함은 소진(r=.436, p<.001), 대처(r=.254, p<.001)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무례함(r=-.258, p<.001), 소진(r=-.212, p=.010)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대처(r=.253, p=.002)와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60)

Variable	Incivility	Burnout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p)			
Incivility	-			
Burnout	.436 (.001)	-		
Coping	.254 (.001)	.248 (.002)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58 (.001)	-.212 (.010)	.253 (.002)	-

Data were presented with r(p).

3.5 연구대상자의 무례함, 소진, 대처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사와의 관계와 상관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무례함, 소진, 대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595로 2에 근접하므로 상호 독립적이었고,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434~.638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27~4.67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에 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868,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나는 결정계수(R^2)는 .266으로 설명력은 26.6%였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처(β=.350, p<.001), 무례함(β=-.261, p=.003), 소진(β=-.200, p=.018) 순서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60)

Variable	B	SE	β	t	p
Coping	.448	.05	.350	4.225	.000
Incivility	-.169	.055	-.261	-3.056	.003
Burnout	-.201	.084	-.200	-2.400	.018

R=.516, Adj R^2=.266, F=9.868, p<.001

4. 논의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모두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년을 대상으로 하여 86.9%가 24세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대부분 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학생들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정도는 1.18(±0.58)점으로 낮은 정도이었는데, 이것은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정도가 절반 이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5]와 비슷하였다. 무례함 정도가 낮게 나온 것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로부터 무시나 무관심, 불쾌한 표정 등 무례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관계가 갖는 특성상 선배나 연장자의 언행에 대해 허용적이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20]. 보통 이상의 소진(3.41±0.37) 정도는 Hong[5]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임상실습현장에서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지식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동반된 무거운 책임감, 학업과 임상실습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어려움 등이 상존하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21]. 또한 보통 이상의 대처(2.48±0.29) 정도는 Hong[5]과 Park과 Jang[22]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여러 종류의 대처를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임상실습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보통 이상의 임상실습만족도(3.30±0.38)는 Kim과 Park[23]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본 대상자의 임상실습 상황이 보통의 상황임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주 영향요인은 대처로 나타났는데 대처란 다양한 내·외부적 요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들은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지 수간호사나 일반간호사와 관계가 좋은 경우, 대처 정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이러한 다양한 대처방법의 사용을 통해 상황의 요구를 해결하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Lazarus[24]는 상황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다변하는 상황에서 대처방법은 정해져 있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어떠한 특징적인 방법을 떠나서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임상실습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Lee와 Kim[25]의 결과를 지지한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임상실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면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무례함은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모호한 행동으로 상호 존중 하에 관계를 맺는 사회관계에서 낮은 정도의 공격성내지 일탈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오해나 과민반응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관계나 업무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주로 간호사들로 부터 무관심이나 경계, 귀찮아함, 무시하거나 반말함, 비판하는 말에 의해 무례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와 정서적 탈진, 냉담함과 같은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12,20]. 이것은 본 연구에서 무례함이 소진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Babenko와 Laschinger[26]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부터 경험하는 무례한 행동은 실습 무단결근이나 만성피로, 정신적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하게 하므로 명백하게 소진을 유발하고 나아가 임상실무 능력을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며, 따라서 임상실습 현장에서 주로 간호사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소진시키고 임상실습만족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무례함이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Hong[5]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회피중심 대처

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무례함을 해결가능성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면 모든 대처를 동원하여 상대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여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무례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동원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소진이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소진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간호대학생 입장에서 임상실습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한 상황에 대처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례함에 대처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불쾌한 상황이고, 이러한 실습지 직무관련 스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업도 가중되므로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띄게 되고 점차 소진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27,28]. Curtis 등[29]은 임상실습지에서 간호사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충돌 상황은 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인내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므로 임상실습을 마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고 하였고, Leiter[28]는 개인이 스트레스원에 대해 대처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피중심의 대처방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르는 불만족으로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결국 소진이 가중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대처는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요인이며, 경험한 무례함 정도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았고, 경험한 무례함 정도와 소진정도가 높을수록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직면하게 되는 무례함이나 소진 유발 상황은 오히려 다양한 대처행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므로 임상실습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으나, 무례함이나 소진이 발생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분명히 유쾌하지 않은 상황임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Lazarus[24]의 외부 환경적 요구와 내부 개인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상황에 개인이 놓이게 될 때, 개인은 이를 해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평행상태를 유지하려는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주장과 임상실습과정에서 축적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 및 인내력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Yu[30]의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임상실습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나 인간관계 방법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지적인 간호교육 체계나 상시 상담체계, 실습지에서 발생한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 대인관계 해결을 위한 교과목 또는 교수법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상실습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례함, 소진, 대처에 대한 실습 전・중・후의 준비와 환경적 여건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이 26.6%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과와 실습지 특성을 포함한 경로분석과 같은 설명들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1]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0, no. 2, pp. 219-231, 2004.

[2] Bronner, G., Peretz, C., & Ehrenfeld, M. “Sexual harassment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2, pp. 637-644, 2003.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667.x

[3] Hunt. C, Marini, Z. A. “Incivility in the practice environment: A perspective from clinical nursing teacher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2, no. 3, pp. 66-370, 2012.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2.05.001

[4] Cortina. L. M. “Unseen injustice: incivility as modern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3, no. 1, pp. 55-75, 2008. DOI: https://doi.org/10.5465/AMR.2008.27745097

[5] Y. K. Hong.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6.

[6] Clark. C. M, Springer. P. J. “Academic nurse leaders’ role in fostering a culture of civility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9, no. 6, pp. 319-325, 2010.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00224-01

[7] Heather. K. S, Michael, L. A. Debra. G. “Workplace

empowerment, incivility, and burnout: impact on staff nurse recruitment and retention outcom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7, pp. 302-311, 2009.
DOI: https://doi.org/10.1111/j.1365-2834.2009.00999.x

[8] Randle. J. "Bullying in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3, pp. 395-401, 2003.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728.x

[9] Fang. D. Z, Young. C. B, Golshan. S, Mourtier. C, Zisook. S. "Burnout in premedical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Psychiatry. vol. 36, no. 1, pp11-16, 2012.

[10] S. Y. Kim, G. O. Park, J. K. Kim. "Path analysis for workplace incivility, empowerment,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9, no. 15, pp. 555-564, 2013.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3.19.5.555

[11] Anderson. L. M, Pearson. C. M. "Tit for t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4, no. 3, pp. 452-471, 1999.
DOI: https://doi.org/10.2307/259136

[12] Anthony. M, Yastic. J. "Student nurses' experiences with incivility in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0, no. 3, pp. 140-144, 201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131-04

[13] Maslach. C, Jackson, S. 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 2, no. 2, pp. 99-113, 1981.
DOI: https://doi.org/10.1002/job.4030020205

[14]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Bakker. A. 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3, no. 5, pp. 464-481, 2002.
DOI: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15] H. Shin, A. Puig, J. Lee, J. H. Lee, S. M. Lee.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vol. 12, no. 4, pp. 633-639, 2012.
DOI: https://doi.org/10.1007/s12564-011-9164-y

[16] Lazarus. R. S.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vol. 55, no. 3, pp. 234-247, 1993.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9305000-00002

[17] Lazarus. R. 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18] J. S. Han, G. S. Oh. "The relation among everyday occurrences from stress, the issue of health, the countermeasures and social support-targeting the you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3, pp. 414-429, 1990.

[19] S. J. Lee. "The study for student nurs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0, no. 2, pp. 41-52, 1980.

[20] J. W. Park, N. 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2, no. 1, pp. 27-35, 2003.

[21] H. S. Cho.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ol. 12, no. 1, pp. 3-14, 2009.

[22]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23] S. M. Kim, S. Y.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6, pp. 3409-3421, 2014.

[24] Lazarus. R. S.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vol. 55, no. 3, pp. 234-247, 1993.
DOI: https://doi.org/10.1097/00006842-199305000-00002

[25] H. S. Lee, E.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1, pp. 5-13, 2008.

[26] Babenko. M. Y, Laschinger. H. K.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11, no. 1, pp. 145-154, 2014.
DOI: https://doi.org/10.1515/ijnes-2014-0023

[27] C. M. Ko.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8, no. 3, pp. 239-247, 2015.
DOI: https://doi.org/10.15434/kssh.2015.28.3.239

[28] Leiter. M. P. "Coping patterns as predictors of burnout: The function of control and escapist coping patter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2, no. 2, pp. 123-144, 1991.
DOI: https://doi.org/10.1002/job.4030120205

[29] Curtis. J, Bowen. I, Reid. A.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7, no. 3, pp. 156-163, 2007.
DOI: https://doi.org/10.1016/j.nepr.2006.06.002

[30]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2, pp. 1129-1144, 2015.

김 종 근(Jong Gu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
- 2015년 3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5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정책, 사회적 책임, 국제보건

천 의 영(Eui Young Cheon) **[정회원]**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적지지와 사회연결망, 노인건강, 삶의 질

유 장 학(Jang Hak Yoo) **[정회원]**

- 200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9월 ~ 2012년 8월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 2012년 9월 ~ 2014년 8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과
- 2014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청소년, 스트레스